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행운의 갈림길 5

글 히로시마 레이코 **그림** 쟈쟈 **옮김** 김정화
크기 128*188㎜ **중량** 296g **쪽수** 168쪽
값 15,000원 **펴낸날** 2026년 11월 27일
펴낸곳 ㈜길벗스쿨 **대상** 어린이
ISBN 979-11-7467-284-1 (73830)

☞**문의** 박수선
(02-330-9862 / hyangkie@gilbut.co.kr)
☞**검색 키워드** 초등, 판타지, 마법, 환상동화, 어린이문학, 베스트셀러, 권선징악, 교훈, 초등필독서, 독후활동, 전천당

ISBN	도서명(상품명)	인증유형	주의사항	사용연령	제조일	제조국
979-11-7467-284-1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행운의 갈림길5	공급자적합성확인	없음	8세 이상	2026. 11.27	대한민국

전천당만큼 신기한 가게들이 길흉거리에 속속 등장!

사랑을 이어주는 꽃집 <홍백 백화점>,
슈퍼스타로 만드는 악기를 파는 <주옥 악기점>,
다가올 운명에 어울리는 커피를 내어 주는 <운명 카페> 등
가게가 늘어날수록 베니코의 근심도 깊어지는데……

1. 줄거리

행운(吉)과 불행(凶)이 교차하는 '길흉거리'에 새 가게들이 쉴 새 없이 문을 연다. 손님의 머리카락 한 가닥으로 꽃값을 받는 〈홍백 백화점〉, 손님의 운명을 읽고 그에 어울리는 음료를 내놓는 〈운명 카페〉, 악기를 팔고 음악가에게 평생 최고의 노래를 받아 가는 〈주옥 악기점〉, 강함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검도장 〈존심관〉까지. 거리는 나날이 활기를 띠지만 〈전천당〉의 주인 베니

코는 손님이 많다고 늘 좋은 결과만 생기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다.

한편, 〈전천당〉에도 저마다 간절한 소원을 품은 손님들이 찾아온다. 딸의 독후감을 완벽하게 고쳐 주고 싶은 엄마는 〈수정 돋보기〉를, 말실수 한마디로 반 친구들에게 미움받게 된 중학생은 가르치는 솜씨가 좋아지는 〈쏙쏙 가르침차〉를,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검도 소년은 먹으면 강해지는 〈스트롱 젤리〉를 손에 넣는다. 하지만 같은 과자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말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길흉거리 지도를 내려다보며 누군가 나지막이 웃는다.

과연 길흉거리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2. 책 소개

■ 꽃집, 카페, 악기점, 검도장까지!
점점 넓어지는 길흉거리, 점점 짙어지는 미스터리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행운의 갈림길 5권》에서는 길흉거리가 한층 더 북적이는 상점가로 확대된다. 머리카락을 값으로 받아 세상에 없던 꽃을 만들어 내는 〈홍백 백화점〉, 손님의 운명을 읽는 노신사의 〈운명 카페〉, 레게 가수 같은 차림의 주인이 음악가의 최고 명곡을 몰래 모으는 〈주옥 악기점〉, 진검 같은 살기를 뿜어내는 관장의 검도장 〈존심관〉까지, 베니코 못지않게 개성 넘치는 새 이웃들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선복서점〉 젠지의 서툰 첫 데이트, 그 자리에 불쑥 나타난 쌍둥이 형 등 길흉거리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층 풍성해졌다. 책 끝에는 '길흉거리 지도'와 '상점 주인 프로필'을 실어 이야기 속 거리를 직접 거닐며 가게들을 찾아보는 재미까지 더했다.

■ 설명서를 끝까지 읽었다면 결말이 달라졌을까?
행운의 '갈림길'을 만드는 것은 바로 나의 선택

〈전천당〉의 과자와 물건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점이다. 〈수정 돋보기〉는 빨간 면으로 보느냐, 파란 면으로 보느냐에 따라 찾아 주는 것이 다르고, 〈쏙쏙 가르침차〉는 그늘에서 마시느냐 햇볕 아래에서 마시느냐에 따라, 〈스트롱 젤리〉는 실내에서 먹느냐 야외에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행운의 손님들은 설명서를 대충 넘기거나 끝까지 읽지 않거나 서둘러 선택한 대가로 저마다 뜻밖의 결말을 맞는다. 책장을 넘기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동안, 아이들은 글을 꼼꼼히 읽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습관과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태도를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 깨닫게 된다.

■ 친구 관계, 승부욕, 꿈… 요즘 아이들의 진짜 고민을 담다
자기다움, 공감, 참된 힘을 일깨우는 이야기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행운의 갈림길 5권》에 나오는 손님들의 이야기는 초등학생과 청소년이 실제로 부딪히는 고민과 맞닿아 있다. 〈수정 돋보기〉로 맞춤법은 완벽해졌지만 공모전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하쓰네의 이야기는 정답보다 '나만의 개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AI로 글을 쓰고 과제를 해결하는 일이 흔해진 요즘, 하쓰네의 이야기는 '나만의 글'이란 무

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재능 있는 아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친구들과 멀어지는 히나리의 이야기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과 진심 어린 사과의 힘을 전한다.

이기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던 검도 소년 조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얕보는 강함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손쉬운 성공 앞에서 흔들리는 청년 하야토의 이야기는 자기 힘으로 꿈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묻는다.

■ 〈전천당〉의 과자는 이렇게 태어난다!
마네키네코 노랑이의 좌충우돌 신제품 개발기

독자들이 사랑하는 〈전천당〉의 금색 마네키네코들이 이번에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나선다. 길 흉거리에 경쟁 가게가 생길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사탕 담당 노랑이는 신제품 아이디어를 찾아 등산객의 배낭에 몰래 숨어 산으로 떠난다. 그곳에서 무모한 등산객들을 끝까지 지키는 산악 구조대원을 만나며 노랑이는 마침내 〈멈춰라 사탕〉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큰 힘을 준다면 그에 걸맞은 조건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베니코의 말처럼, 〈전천당〉의 신기한 과자가 어떤 고민 끝에 만들어지는지 엿보는 재미는 오랜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된다. 동시에 산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다른 사람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소중함도 자연스럽게 일깨운다.

■ 한 편씩 끝까지 읽는 즐거움, 함께 이야기하는 즐거움
스스로 읽는 습관과 독서 토론을 잇는 시리즈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시리즈는 어린이 혼자 읽는 책을 넘어,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이야기 속 인물의 선택과 결말을 바탕으로 "너라면 어떤 걸 골랐을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같은 질문을 던지며 아이의 감정 인지력과 자기 성찰, 가치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이 시리즈는 훈육이나 교훈을 강요하지 않는다. 판타지라는 안전한 상상 속 공간 안에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의 무게를 이해하게 만듦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길러 주기에도 적합한 작품이다.

3. 책 속으로

베니코는 놀란 얼굴로 꽃집의 간판을 쳐다보았다. 새빨간 바탕에 하얀 글자로 '홍백 백화점'이라 쓰여 있었다.

"홍백 백화점? 백 가지 꽃이 있는 가게란 뜻이군."

베니코의 혼잣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때맞춰 꽃집 안에서 누군가가 나왔다.

몸집이 아담한 여자였다. 붉은색과 하얀색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고, 녹색 앞치마를 둘렀다. 분홍색으로 물들인 머리카락은 뽀글뽀글 부풀어 있어 마치 솜사탕처럼 폭신폭신해 보였다.

귀여운 얼굴이었지만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천진하고 앳된 분위기와 차분하고 냉정한 분위기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른처럼 보이기도 했

다.

16쪽 <홍백 백화점> 편에서

베니코는 발끈하는 아키네를 가만히 쏘아보았다. 그제야 마음이 가라앉은 아키네는 큰소리친 것이 창피해졌다.

"죄, 죄송해요……. 하지만 알려 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설명서에 분명히 적혀 있었을 것이옵니다. 〈수정 돋보기〉의 힘은 문장을 바르게 고치는 것. 하지만 틀리지 않는 글이 언제나 좋은 글은 아니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웅얼거리는 아키네 대신 하쓰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알 것 같아요."

51쪽 <수정 돋보기> 편에서

신제품 개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다.

"어떤 사람을 위해 어떤 상품을 만들까?"

"마법 같은 힘을 주는 대신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까?"

이런 생각을 단단히 해 두지 않으면 시험 삼아 제품을 만드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사탕을 담당하는 마네키네코 노랑이는 도무지 신제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우냐아아…… 어떡하지. 아이디어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냥."

머리를 끌어안고 있는 노랑이를 보다 못해 번병 담당인 점박이가 말을 걸었다.

"노랑이군, 생각이 잘 안 풀릴 때는 밖으로 한번 나가 보는 것도 좋다냥."

115쪽 <노랑이의 등산> 편에서

4. 목차

프롤로그 …… 7
홍백 백화점 …… 9
수정 돋보기 …… 27
쏙쏙 가르침차 …… 55
운명 카페에서 …… 79
주옥 악기점 …… 89
노랑이의 등산 …… 113
스트롱 젤리 …… 133
에필로그 …… 160
길흉거리 상점 주인들 …… 164

5. 저자 소개

글 히로시마 레이코

일본의 판타지 소설 작가로 어린이들의 두터운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 요정의 숲》으

로 제4회 주니어 판타지 소설 대상을 수상하였고, 《신을 지키는 아이》로 제34회 우츠노미야 어린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된 작품으로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십 년 가게〉, 〈비밀의 보석 가게 마석관〉, 〈트러블 여행사〉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그림 쟈쟈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태어났습니다. 2011년에 디자이너로 독립해 일러스트를 그리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작품으로 《너를 위한 최고의 선물》,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숲속 세탁소 시라기쿠 할머니〉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번역 김정화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한일아동문학을 공부하며 일본의 좋은 어린이 책을 국내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옮긴 책으로 《폭풍우 치는 밤에》, 《보노보노,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비밀의 보석 가게 마석관〉, 〈트러블 여행사〉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제 품 명 :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행운의 갈림길 5
제조사명 : (주)길벗스쿨
제조국명 : 대한민국
사용연령 : **8세 이상**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56 (서교동)
전화번호 : 02-332-0931 제조년월 : 판권에 별도 표기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